

【시무식 덕담】

올해는 제33대 집행부가 마무리되고 제34대 집행부가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모두들 자기 업무에 충실하여 제33대의 업무성취가 원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안 미진한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임기 초 선정한 핵심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지는 뿌듯한 한해를 만들어 가도록 능동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총무원 개개인 간에, 그리고 부서간에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고 다툼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시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상호 교감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종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심으로 사회와 종도들의 찬탄과 축복 속에서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무식 때 한 얘기들을 마음에 잘 담아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합니다. 총무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며 종무행정 주체이기에, 공적도 과오도 다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라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자긍심과 책임으로 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이 없다면 신년의 의미도 약해지지만, 매년 하는 신년 계획을 반복하듯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쓸모없는 습관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라 할 것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이 지나고 다시 첫해입니다. 마냥 좋은 일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의 원력으로 한 해의 소중한 종단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실천이 있다면, 종도의 공감과 불자의 따뜻한 격려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올 한해도 두루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